

2030비전

1. 150명의 지도자 양성
2. 100개 교회 개척
3. 자립 및 개척교회 자립 지원
4. 1만 어린이 전도

신분증이 없는 인디오 이야기

현 사역지에서 고속 배로 20시간 아마존강 상류로 올라가면 ‘이키토스(Iquitos)’라는 페루 아마존의 관문도시가 나온다. 이곳에서 군용 수륙양용 비행기로 약 40분정도 동남 방향으로 이동하면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지역 ‘자바리(Javari)’강변 ‘페루 국경 수비대가 있는 안가모스(Angamos)’라는 인디오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군사지역 외 아마존 지류 ‘자바리(Javari)’강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보급하는 배후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인디오 배로 하루와 이틀이 걸리는 두 마을에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정하여 신학교에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 마을은 해가 지면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나무에 불을 붙혀 방을 밝히고 화장실에는 종이 대신에 조그만 나무 막대기로 뒤를 처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림 1. 안가모스 마을에서 온 신학생

개강의 한달을 앞두고 군용비행기가 출발하는 일정에 5사람의 신학생을 위해 예약을 하고 비행기표 대금을 지불 하려고 하니 두사람은 비행기를 탈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왜 두 사람은 앉되느냐고 물으니 두 사람은 신분증이 없다고 한다. 왜 신분증이 없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고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타느냐고 물으니 비행기를 못탄다고 한다.

돈이 없어 비행기를 못타는 것이 아니고 신분증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타는 이유를 나중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서 알았다. 그들은 아직 정부에 신분이 등록되지 않아서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녔는가 물으니 그런 경우는 상관없이 학교는 다닐 수 있다는 이해가 전혀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깊은 강속에 소외된 이들의 삶은 문명 세상과는 전혀 관계 없이 자기들의 공동체서 하루 하루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간다. 문명의 세계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도화된 문명세계로 불러내어 함께 삶을 살아 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갇힌 삶을 살수가 없고 문명으로의 노출은 시간문제 이기 때문이다.

어둠의 문화가 마을을 지배하기전 복음이 먼저 점령을 해야 할 일로 생각된다. 이런 일은 생각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사람이 발로 뛰어 다니므로 가능한 일이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I. 신학교 사역 1)삼국경 신학교

설립 20주년을 맞은 삼국경 신학교는 2월 지도자 수련회와 함께 강의를 시작 했습니다. 금년에는 1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을 잘 인내하고 4년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것입니다.



그림 2. 신학생들 새벽기도 모임과 졸업생

2) 새로운 '아마조니아' 신학교

새롭게 개설된 '아마조니아 신학교' 지난 2월 1학기 개강과 함께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몇 학생들이 휴학을 했지만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수업중에 신학교의 간판도 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학교 이지만 아마존 곳곳에 필요한 사역



그림 3. 아마조니아 신학생들과 강의

자를 양성하는 귀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기도 해 주십시오. 지금은 강의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공간을 함께 사용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캠퍼스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양육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I. 2 교회개척 사역

1) 마츠세스(Matsés)종족 교회당 건축: Limon 과 Santa Rosa 마을

여러 종족 가운데 페루 아마존지역의 '마츠세스' 종족은 '자바리강'의 상류 깊은 강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디오들입니다. 외부와 소통과 교류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두 마을은 한참 나무를 준비하여 교회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반 벽돌 건물 구조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벽돌재료의 이동과 건축기술자의 문제로 좋은 나무를 잘라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날때 벽의 아래의 나무가 비로 상하는 문제는 페인트칠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마을들에 사는 젊은 학생을 불러서 신학교 공부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작은 일이 있었고, 8월 2학기에 다시 훈련을 시킬 학생을 선발 하여 공부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동부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월에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오시는 분들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림 4. 마츠세스 마을 목사님 신학교 방문

III. 교단 (IETFAM) 활동 사역

1) 빨뚜리마 교회 어린이 유아세례

교회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빨뚜리마 교회에서 지난 3월 6명의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들에게 신앙고백으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을 책임있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인이 되면 자신들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 고백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모두 유아세례를 받기위해 아이들을 예쁘게 옷을 입혔고 많은 성도들께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그림 5. 어린이 유아세례

이 교회는 처음 아마존에 부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성전도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돌보던 목사님이 다른 마을에서 이사를 와서 사역을 했던 관계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잘 적응하시고, 공부중에 있는 신학생들은 잘 배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로 그들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아마존강 3지류 지역권 교사훈련 학교

어린이 교재 보급과 훈련이 어려운 아마존 강 5 개 지류, “우카얄리(Ucayali)강”, 아마존 삼국경지역 “까발료 꼬차”, 그리고 “이키토스 지역”의 지류에 흩어진 40여 교회들의 공동체를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우카얄리(Ucayali)강 지역은 이키토스에서 고속배로 약 8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까발요 꼬차 지역” 브라질 3국경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생업(농업/고기잡이)을 중단하고 젓먹이 아이와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젓을 먹고 작은 아이들을 강의 중에 돌보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각기 마을 공동체로 돌아 갔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감동적인 훈련 모습입니다.



그림 5.까발료 꼬차, 레게나, 이키토스 교사 훈련

3. ‘뿌뚜마이오(Putomayo)’강 지역권 여름 성경학교

뿌뚜마이오 아마존강 지류는 콜롬비아와 페루의 국경을 구분짓고 에쿠아도르 북쪽에서 남으로 흘러 브라질 아마존강으로 합류하는 약 1600Km의 중요한 지류입니다. 이 지류에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외부의 사람이 처음으로 마을로 들어가 어린이들에게 특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림 6.. 게피, 소프린, 레기스모 지역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Happy day with Jesus)”이란 제목으로 페루 2마을 (Gueepi, Soplín), 콜롬비아 1개 마을(Leguisamo)에서 각각 실시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른들과 어린이 들이 함께 5가지 복음색으로 현지 아마존 문화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5가지 색은 노랑(천지창조), 검정(범죄), 빨강(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흰색(죄씻음), 초록(온전한 성장)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각 부스(장소)를 돌면서 색의 의미와 말씀을 외우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한권의 주제를 가르쳤고, 약 200명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그 이름들을 올려 드렸습니다.

4. 자립사업: 양계/양돈/양어/고부가 농업사업

지금은 ‘아사이베리(Açai Berry)’가 익어 가는 계절입니다. 약 12년전 심어둔 ‘아사이베리(Açai Berry)’가 많은 열매를 맺어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로 판매하고, 일부는 주스로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준비되면 가루를 제조하고 판매를 위한 여러 과정도 준비 할 예정입니다.



그림 7. 아사이 베리 열매 수확

IV. 선교현장 방문:

미국의 뉴욕 소재 갈릴리 교회 담임 및 은퇴 목사님 일행이 인디오마을 사역지와 신학교를 방문하시고 함께 기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발걸음에 감사합니다.



그림 8. 갈릴리 교회 목사님들 일행

기도 제목

A. 삼국경 신학교 지도자 양성 사업

1. 세워진 많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교단의 성장을 위해서
2. 1차산업 자립사업이 3차산업으로 확대와 ‘아사이 베리’ 가루제조 기계 구입위해

B. 이키토스 ‘아마조니아’ 신학교 사업

1. ‘아마조니아’ 새 신학교가 상류 아마존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양성소가 되기를
2. 현 교회공간에서 (향후)현지에 맞는 캠퍼스 마련으로 영향력있는 신학교로 성장토록
3. 학교 운영을 위한 이사회구성과 행정력으로 현지의 좋은 신학교로 이어나도록
4. 향후에는 미국의 신학교와 (분교)자매학교로 세워질수 있도록

C. 1만 어린이 제자화 사업 (교사 사관 학교)

1. 어린이 전도위한 교사 훈련이 4개월 단위로 3 나라 14개 지역 에서 시행됩니다. 훈련된 지도자, 체력, 필요한 것들이 채워 지고 사업이 더욱 확대 되도록(안가모스, 산파블로, 외 6개 지역→26년 1차 훈련)
2. 어린이 전도사업의 성장으로 청소년(SFC) 사업의 확장과 청소년 교사 훈련위해
3. 이키토스 다목적공간(교회당, 어린이 방과후 학교, 장년/신학교교육)이 잘 활용되도록
4. 교사의 해외훈련 기회와, 교사 훈련사업이 신학교 과목 적용/현장 확대위해

D. 교회당 건축사업 및 기타

1. 자바리 강 ‘안가모스’ 지역 마츠세스 2개 마을(산타로자, 리망)교회 교회당 건축 완공 위해
2. 건축중인 마을에 신학교서 훈련받은 지도자가 세워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3. 26년 5월부터 방문 할 단기선교팀들과 건축중인 마을이 5월 헌당식을 함께 하도록
5. 후방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과 기도 후원자들의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위해
6. 자녀들의 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 가도록

아마존이 주를 찬양 양 성식 김 혜정 선교사 올림